

더욱 힘차게 활동, 후원에 보답하겠습니다!



6월 미얀마 뽕마벤 고아원에서 진행된 봉사캠페인에서 고아원 아이들이 한국불자들에게 밝은 웃음으로 감사를 전하고 있다.

“한국기술대학 건립까지 진력 다할 터”

“한국불자들의 성원에 대한 미얀마 불자들의 감사의 마음을 대신 전합니다.”

한국·미얀마 친선교류협회 회장 목탁 스님(사진)은 미얀마문화원과 현대 불교신문사가 공동진행한 캠페인에 동참한 한국불자들의 따뜻한 자비심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목탁 스님은 “신부의식 지원 등에 직접 미얀마를 방문해 눈으로 보고 느낀 분들이 지속적인 후원에 나서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목탁 스님은 이어 “성지순례와 현지 봉사활동, 지원사업을 묶어 한국 불자들이 보다 많이 교류협회 행사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며 새해 포부를 밝혔다.

스님은 한국·미얀마 친선교류협회의 당면 과제로 2012년 한국기술대학 건립을 들었다. 한국기술대학은 미얀마 정부가 5만 여 평에 이르는 대학 부지를 기증했지만 총 10억 여원에 이르는 건립 비용이 문제다. 많은 사람들의



동참으로 현재 1층 골조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완공까지는 갈 길이 멀다.

목탁 스님은 “한국기술대학 건립을 위해 새해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을 펼치겠다”며 “2011년 신부의식 500여 명 지원, 우물파기 20여 곳 등 지원한 역량을 기술대학 건립에 모으겠다”고 말했다.

땀흘려 봉사해 온 30년의 세월

한국·미얀마 친선교류협, 우물파기 50여 회 등 지속 지원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미얀마, 하지만 미얀마는 국민행복지수가 3위인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왜 가난한데도 행복할까요?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서로가 상생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활발히 구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미얀마 친선교류협회입니다.

인도대륙과 인도차이나반도 사이에 위치한 미얀마는 태국·라오스·캄보디아·베트남 등과 함께 25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한국과 같은 불교 선진국의 도움이 부처님의 손길처럼 다가옵니다.

한국·미얀마 친선교류협회는 미얀마 현지에서 한국기술대학·한국 불교관 건립을 비롯해 미얀마 전통 불교의식인 신부의식(수계) 지원, 저소득층 교육지원

등 다양한 문화교류를 펼치고 있습니다. 양국에 추진 중인 한국기술대학은 현재 1층 철골 구조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한국기술대학에서는 한국어와 영어, 일어 등 외국어와 컴퓨터, 자동차, 봉제 기술 등 실용기술 교육이 진행됩니다.

산업기반이 미약한 미얀마에서는 기술을 배우는 일이 신분상승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2의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는 나라, 동남아에서 가장 발전가능성이 높은 나라, 미얀마에 한국 불자들의 도움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한국·미얀마 친선교류협회는 2011년 국민지역 초등학교 설립, 빈약 사찰 보수지원, 우물파기 운동, 승려 교육자료 지원, 국민지역 출가의식 지원, 국제호의 개최 및 지원, 국제부다사리 박물관 및 미얀마 연방정부 한국주재문화원 개원, 수해지역 복구지원, 학교건립 자선바자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그 밖에도

상호교류 공연, 교육자재지원, 아웅산묘지 폭파 순국선열 천도제, 비구니 스님 수행처 건립 제공 등 많은 나눔 행사를 봉행해왔습니다.

2011년 3월에는 평간준지 초등학교 건축을 시작해 1500여 국민층 아동들에게 기술교육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또 8월에는 흘라임따야, 평간준지, 뽕마벤 등 3개 국민마을에서 식수개발사업을 진행해 빗물에 의존하던 미얀마 주민들에게 깨끗한 자비의 물을 선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6월에는 미얀마 뽕마벤 고아원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의류, 학용품, 쌀기증과 후원금 전달, 방역 소독, 우물기증, 수용시설 증축을 통해 고아원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사했습니다. (02)733-5670

후원계좌: 국제불교지도자협회
국민은행: 023501-04-147581
농협: 301-0016-0537-91



신부의식 지원을 받은 동자승들이 해맑게 웃고 있다.



식수 개발 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마을 주민들



한국에서 직접 미얀마 결연행사에 동참한 한국불자들

미얀마 신부의식 지원 및 고아원 돕기에 동참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후원자 명단 길상사, 지성선원, 연대암, 인각사, 포천 송광사, 보현사, 영동 천국사, 거제 대원사, 문산 문수사

이연숙, 박상준, 이경숙, 조문연, 김경자, 박재춘, 전월득, 허관, 김정석, 김성태, 이명철, 차경희, 정영신, 김대홍, 김정희, 이건우, 조미란, 이영란, 전순재, 강옥란, 변용태, 고헌선, 황미경, 강옥란, 김현숙, 이시분, 권옥순, 허옥, 이주섭, 이현석, 임승혜, 강희정, 공춘순, 김선용, 김현자, 나정희, 남순현, 류연숙, 박수자, 박숙, 박은희, 박정선, 신상열, 이순옥, 이순재, 이영순, 장정섭, 조영희, 최기철, 한영덕, 황행진, 최정연, 최만철, 최왕근, 박대연식, 김필순, 이연순, 최규환, 전미선, 김영애, 김희정, 김혜정, 김효순, 김근배, 김영식, 김수현, 최기철, 조현식, 김필재, 조재현, 전혜정, 김아람, 김정호, 김영배, 김혜령, 김정임, 김귀례, 이영민, 최현, 임소라, 노재복, 김은정, 김춘삼, 이충호, 서상호, 조은현, 황복자, 홍여진, 이영식, 최윤정, 허유림, 이주연, 박현민, 김동휘, 김경희, 조미희, 엄승현, 이지애, 문경옥, 한미옥, 장수연, 이태현, 임영희, 조달재, 이덕형, 김정란.

우물파기 후원자 모미숙, 양시향, 범현주, 김재은, 신명옥, 최영태, 장병환, 이조형, 부산 인각사, 오성준, 유희정, 최미희, 조승환, 박정우, 김정옥, 이순영, 김태희, 권영선, 이수연, 김승희, 이배식, 박대연심, 자원 스님, 이정아, 김은주, 한광호, 김연철.

이외에 익명으로 동참해 주신 많은 불자님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현대불교신문·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국민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자원 가능합니다.



- 신부 출가의식 지원

신부는 미얀마인인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부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도움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서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경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미얀마문화원